교회종파 등 밝혀진점 없어경찰, 시신부검·구속영장검토  
  
  
  
  
  
  
  
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. 이미지투데이교회에서 한 고등학생이 밥을 먹다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, 해당 학생의 얼굴과 몸의 멍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.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고등학생 B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.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"B 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"고 말하며 "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밥을 잘 못먹었다"고 119에 신고했다.소방 당국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교회의 방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. 그는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해 119구조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. 경찰은 발견 당시 B 양의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든 이유로 사망 직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이날 새벽 A 씨를 긴급체포했다. 아직 그와 B 양의 관계, 교회 종파의 성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.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A 씨의 구속영장도 검토할 예정이다.경찰 관계자는 "오늘 새벽에 피의자를 체포해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"고 밝히며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.